

목양 칼럼

니카라과 전도대회의 의의

니카라과 전도대회가 2008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제13차를 맞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만 명 이상씩 모이는 대형 집회를 한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쌓이면 큰 강물을 이룹니다. 전도대회가 반복되면서 은혜의 물방울이 이제는 강물이 되어 광야와 같은 마사야 지역을 흐르고 사막과 같은 니카라과를 적시는 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02년에 처음 니카라과를 방문했을 때 개신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5%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감사가 밀려옵니다. 처음부터 이 대회를 기획하고 진행해 왔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니카라과 전도대회의 의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교지 교회의 부흥
니카라과 전도대회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현지인 교회와 현지 선교사,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영혼구원과 교회 활성화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기도와 전도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2월 중순에 선교팀이 니카라과에 도착하면 오전과 오후에 사람의 섬김이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중보기도, 의료사역(안과, 치과, 침술, 내과진료), 미용과 네일, 어린이 사역 등이 포함됩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전도대회에는 찬양, 기도, 말씀, 구원초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구원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새 신자를 양육하여 다음 해에는 세례를 받게 합니다.
니카라과 정부의 규제로 집회를 위한 공공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기적적으로 집회 장소를 제공한 사람 추구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구장의 이사들의 2/3가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통해 성장한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도대회에 참석한 이 교회는 처음에 20명이었던 정도가 지금은 15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도 증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또한 약 300대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맑은 편 주차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도대회를 통해 부흥했으니 자기들이 집회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사야 집회에는 이 지역의 328개 현지인 교회가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2. 현지 선교사 사역의 격려
니카라과에는 이동중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인 선교사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선교사님들의 헌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도대회 동안 한인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 공항 픽업과 영접 등 사역 지원을 합니다. 선교지에도 탈진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는데 이 전도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도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집회를 통해 은혜의 말씀에 흠뻑 적셔져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간 사랑의 선물이 마치 위문품과 같은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3. 선교팀의 신앙에 신선한 새 바람
금년에 미국, 캐나다, 한국 등지에서 온 선교팀은 모두 약 100명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과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 밖에 없습니다. 집회 첫 날에는 쌍 라파엘 델 수르에서 약 2,500명이 참석하여 87명이 결신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마사야에서 약 13,000명이 참석하여 232명이 결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도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머뭇거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갈 때 나도 영혼 구원에 쓰임을 받는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우리 마음도 순수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는 무엇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CCM 예배	오전 11:00	CCM실
수요일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치부 예배실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유년부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모임 오후 07:30 (금요일)	중고등부 예배실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에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뉴욕에일장로교회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Y

VISION 2024 HEALING MARCH

뉴욕에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치유와 회복공동체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사순절III)

제 32권 9호 주후 2024년 3월 3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홍정자목사	오세준목사	백에스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260장		
기도	김태근A집사	김동환장로	전용수장로
성경봉독	요(Jn.) 6:1-14		
찬양	에일관악단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오병이어의 표적 김중훈목사		
찬송	520장		
봉헌	다같이		
봉헌찬송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일예배 3월 6일 오후 8:30

- 기도: 이규희권사
- 말씀: 윤도근선교사
- 다음주 기도: 김영애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오세일집사
- 2부: 김두성장로
- 3부: 김근태장로

3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한진영권사
- 3부: 김정현권사, 유희정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윤도근 선교사 (볼리비아)
- **담임목사 동정:** 목양교회 사경희 인도 (오늘 오후, 2시)
- **세례/입교 신청:** 부활절 세례/입교 (신청 및 문의: 부목사실)
- **중고등부 세례/입교 교육:** 오늘부터 4주,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 - 1시 15분
- **2월 통동 및 다독자 보고:** 통동/15명 다독/151명
* 복도에 목장별로 봉독 및 다독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년교육사역부)
- **실버클럽 봉사자 준비모임:** 3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 **Mommy & Me:** 봄학기 개강(3/8-6/7),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뉴욕예일한국학교: 봄학기 개강(3/9-6/15),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교사로 섬길 분을 모집중입니다 (문의: 박에스터 전도사)
- **일광절약시간 시작(Daylight Saving Time Begins):** 3월 10일 (주일), 새벽 2시 → 3시
- **예일교회 교적등록부:** 작성하여 부목사실 제출
-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내:** 신청서 부목사실 제출
* 제 59기 제자훈련 101: 3/05(화) - 6/11(화), 15주
* 제 35기 제자훈련 201: 3/19(화) - 6/11(화), 13주
-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식탁: 박은덕집사(며느리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오현섭장로 다음주: 한대영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2마을 다음주: 3마을
- **3월 헌금위원**
1부예배: 강성식집사 하덕순권사 2부예배: 류석환집사 박용훈집사 박정숙권사 배명선집사
3부예배: 이동윤집사 김광수집사 박용녀권사 김순정집사 박송이집사 윤경선집사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Only. Zoom QR Code:



새가족

- **최승호성도** (하늘 목장, 6선교회, Levittwon, NY 11756)

행사예고

- 03/10(주일) 3월 정기당회
- 03/11(월)-12(화) 뉴욕노회
- 03/14(목) 실버클럽 시작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02:00)
- 03/23(토) 중고등부 Praise Night

천사의 어루만짐 (왕상 19:1-12)

엘리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경지 않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수 많은 기적과 예언을 베푼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아가 지금 심각한 우울증과 죽음 충동에 사로잡힐만큼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은 그 회복이야기입니다.

< 엘리아가 침체에 이르게 된 배경 >

왕상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다 떨어진 식량과 기름을 다시 넘치도록 채워놓는 기적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고, 아합왕 앞에서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는 예언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천기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가 엘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왕상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후, 그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경고하자, 엘리아는 남유다로 피신해서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 달라.” 고 호소합니다.

< 엘리아의 갈등 >

이세벨의 경고도 위협적이었지만, 엘리아는 아무리 큰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또, 우상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실망감, 자책감, 허무감, 조상들에 대한 열등감에 죽음충동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 하나님의 치유 >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아를 천사가 어루만져 깨웁니다.(5절) 어루만진다는 단어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린다.” 즉,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사지 하듯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역에 지친 엘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손수 마련해 놓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병...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또 한 참 깊게 자고나니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며 깨워서 음식을 먹입니다.(7절)

이 천사의 어루만짐이 엘리아를 회복시킵니다. 살립니다. 다시 달려 갈 힘을 준 것입니다. 어루만짐에는 힘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섬기면 그것이 천사의 섬김이 됩니다.

<치유와 회복의 목적>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 후,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명과 비전을 받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엘리아가 호렘산으로 가서 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9절-12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엘리아의 귀에 속삭이듯 말씀하실 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동역자들(남은 자 7000명) 을 붙여 주시기도 하고,(18절) 자신의 사역을 후배(엘리아)에게 물려주는 일(16절)도 하게 하십니다.

<결론>

올해의 표어 힐링마치(HEALING MARCH)는 소수의 아프고 힘든 성도들의 치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누군가가 천사가 되어 어루만지고 누군가가 정성껏 먹이고 섬겼기에, 누군가가 그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기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섬김과 어루만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방송설교

- KRB FM 87.7/94.3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